



대학도 차별화 열풍

학문의 상아탑이던 대학들이 상위 1% 전문인 양성과 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진로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대학가에 차별화 열풍이 불고 있다. 동국대는 외교부와 손잡고 법학과 내에 영사 전문 인재를 배출하는 '영사법무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모험심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주력해 온 이화여대는 대학의 취·창업 랜드마크가 될 '내일 라운지'를 개소해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자주)

**“韓 실리콘밸리 만든다”
취업·창업 원스톱으로**

관학 힘 합쳐 ‘영사전문인력’ 키운다

동국대학교

외교부와 교육·양성 협약
교과목 개설·교재 집필 등
‘영사법무학과’ 창설 계획

동국대학교가 외교부와 손잡고 영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법과대학 내에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과 교재 집필 등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동국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6일 오후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다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동국대는 이를 위해 법과대학 내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원활한 운영 ▲신규 교원 발품 및 임용 ▲교재 집필 등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동국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정보제공 및 특강 등 협력을 제공할 계획



한태식 동국대 총장(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이다. 또한 양 기관은 '영사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사 관련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영사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관학협약 모델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동국대는 기존 법학 영역에서 특화된 영사법무학 분야까지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앞서 강경화 장관은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영사 전문 인력과 동국대가 학과 과정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인력이 아주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해 협약하기로 했다"며 "동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한태식 동국대 총장과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화여자대학교

진로 설계공간 '내일라운지' 개소
1대1 컨설팅·소그룹 활동·세미나
안정적인 미래 생태계 구축 기대

이화여대가 취·창업 랜드마크 '내일 라운지'를 개소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 만들기에 나섰다.

내일 라운지의 내일은 '내일(Tomorrow)'과 '나의 일(My Job)'을 의미하며 이화여대의 취·창업 서비스를 통합하는 새 공간을 상징한다. 내일 라운지에는 취·창업 부스와 카페, 컨설팅 공간 등을 갖추고 창의적 교육과 워크숍,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이 미래와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17일 개소식에서 김혜숙 총장은 "기술 주도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지식이 연결되고 융합돼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1886년 창립 이래 도전과 개혁, 개혁 정신을 소중히 여겨온 이화여대는 내일 라운지 오픈을 계기로 도전과 기회의 역사를 만들고, 나아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안정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비전을 펼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화여대 정문쪽 ECC 중앙에 위치한 내일 라운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내:일 박스', '내:일 카페', '내:일 컨설팅'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내:일 박스'에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돼 취·창업 관련 예약현황과 정보를 실시간



이화여대 학생들이 '내일 라운지'에서 진로지도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확인할 수 있고, 큐브 형태의 취업부스와 오픈 테이블이 마련돼 기업설명회, 창업멘토링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내:일 카페'는 모임과 행사,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일 컨설팅' 공간은 창업 상시상담 안내데스크가 설치되는 등 학생들의 1대1 취업 컨설팅과 소그룹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취·창업 진로지원 원스톱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화여대는 앞서 2016년 학교 앞 쇠락한 상가 점포들을 임대해 학생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사업을 진행했고, '기업가정신 연계전공과목'을 다수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모험심과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에 힘써왔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해 현재 약 33개 예비창업기업의 창업보육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내일 라운지 개소가 여성창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세종대-국민대

‘KSC 2018 라인·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세종대학교는 정보통신공학과 최경식(11학년), 컴퓨터공학과 송치오(12학년) 학생이 'KSC 2018 라인·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라인과 한국정보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라인의 블록체인 메인넷인 링크체인(LINK Chain)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디앱(dApp) 관련 아이디어와 구현 능력을 겨루는 대회다.

세종대 두 학생은 국민대 장태진 학생과 ABA팀으로 구성해 출전했다. ABA팀은 대부분의 기술 문서들이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기술문서 번역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술문서 번역 플랫폼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장을 자동 분류해주는 참여형 번역 서비스이다.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등이 'KSC(Korea Software Conference) 2018 라인·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 송치오 학생은 "국내 유명 기업과 메이저 학회에서 큰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개발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삼육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체육학 과정’ 신설

삼육대는 평생교육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아 체육학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설 과목은 골프 I, 스포츠마사지,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인체생화학, 체육측정평가, 테니스 I, 트레일닝론 등 8개 과목이다.

'골프 I'은 골프의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기초기술을 습득하며, 실전경험을 통

해 경기능력과 훈련방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스포츠마사지'는 운동능력 향상과 스포츠 상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사지 테크닉을 익힌다.

수강신청은 내달 22일까지 삼육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규 1학기 수업은 3월 3일 ~ 6월 22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열람실서 맞춤형학습공간으로... 대학도서관의 진화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확정
연구자에 DB 사용 등 학술 서비스도**

주로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용도로 이용되던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학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년~2023년)'을 확정·발표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6년~2018년 1차 종합계획에서는 대학 도서관의 자료 확충에 중점을 뒀고,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25명 채용

서울시교육청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오)은 2019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분야별 인원은 사서 1명, 시간제돌



협업 공간으로 변신한 대학 도서관. /교육부

우선 대학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강의와 연관된 전공·참고 도서를 신속 구비하고, 전공별 특화된 정보추천서비스(큐레이션)가 제공된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영상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무료 도서배달 서비스도 실시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 서비스도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토록 했다.

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국가와 대학이 3대 7 비율로 투자·구매하고, 구매하지 않은 대학도 일정시간(16시~09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법전담사 13명, 영양사 1명, 조리원 7명, 교육실무사(교무, 과학실험, 전산 통합직종) 3명이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학력, 성별, 지역 제한이 없지만, 사서와 영양사,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 가능하다.

합격자는 3개월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

친 후 정년(만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3~24일 진행되고, 1차 서류심사는 30일, 2차 면접시험은 내달 12일, 최종 합격자는 14일 발표된다.

채용 관련 문은 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